

한국의 사찰 건축



3. 백제의 사찰 건축

학습목표
1. 백제의 사찰건축지(寺址)와 그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백제의 탑파건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지(寺址)를 통해 살펴본 백제 사찰 2. 백제 사찰건축의 특징 3. 백제의 탑파건축
1. 사지(寺址)를 통해 살펴본 백제 사찰
<p>삼국시대 건축문화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건축문화 황금기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p> <p>① 가장 선진적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형식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백제의 불교건축 문화이다.</p> <p>② 백제가 도읍을 공주를 거쳐 부여로 옮기고 나서 성왕에 의하여 불교가 번창하였다. - 성왕 19년(541)에 양(梁)으로부터 공장(工匠), 화사(畫師)를 초빙하여 불사의 건물을 장엄하게 건축하였으며, 일본에 불교를 전해 주기도 하였다. 문헌기록의 의해 밝혀진 백제의 사원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추정 백제 사찰건축지는 많이 있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사찰건축지임이 밝혀진 곳은 주로 부여 지방과 익산 지방의 몇 곳뿐이다.¹⁾</p> <p>③ 백제의 가람배치형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²⁾</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굴사 형식의 가람배치 2) 1금당1탑 형식의 가람배치 3) 무탑 형식의 가람배치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1) 석굴사 형식의 가람배치</p> <p>① 발굴 위치: 주로 충청남도 공주 지방에서 발굴되었다.</p> <p>② 대표적인 사찰건축지: 서혈사지, 남혈사지, 동혈사지 등</p> <p>③ 특징: 웅진 도읍 시기에 건설된 석굴과 불당을 함께 가진 형식의 사찰이다.</p> <p>* 가람배치를 볼 때, 2차례 사찰 형성 시기를 거친 것으로 추정</p> <p>1차 형성 시기: 석굴 안에 불상을 놓고, 석굴 앞에 일정한 마당을 조성한 석굴형태</p> <p>2차 형성 시기: 산 경사지를 정리하여 1금당1탑의 가람배치를 전개</p> <p>(1) 서혈사지(西穴寺址)</p> <p>① 발굴 위치: 공주시 웅진동. 망월산 동쪽 경사면의 중북 해발 180m 되는 곳에 동쪽으로 향하는 석굴이 있고, 석굴의 남쪽 약 100m 아래의 경사지에 사찰의 건물지들이 일부 남아 있다.</p>

② 사찰 이름

- * “西穴寺”라는 글자가 찍힌 기와가 발굴되었음
- * “穴寺”라는 석굴을 표현한 사찰 이름과 유적의 상태가 일치함
- * 《동국여지승람》에 “서혈사는 망월산에 있다.”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서혈사로 추정

③ 발굴 내용

- 석굴 안: 약 150㎡의 공간이 있고, 그 북쪽 벽에 불상대들이 놓여 있다.
- 굴 앞: 인공적으로 정리된 동서 10m, 남북 19m의 공지가 있다.
- 금당지: 석굴 앞 동서 9.05m, 남북 5.85m의 장병형 기단 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당지가 있다.
- 기단: 화강석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기단 위에는 원형의 기둥받침대가 돌친 2개의 주춧돌이 있고, 기단 구석에는 원추형의 구멍이 뚫린 보조 주춧돌(활초)이 놓여 있다.

(2) 남혈사지(南穴寺址)

① 발굴 위치: 서혈사지 동남쪽 약 2km 되는 금학동에 있는 남산 서쪽 기슭에서 발굴되었다.

② 발굴 내용

- 산 중턱에 석굴이 위치해 있으며, 석굴의 깊이는 26m이다.
- 석굴 안에서 백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불상이 나왔다.
- 석굴 앞에는 3단으로 된 건물지가 있으며, 맨 윗단인 석굴의 바로 앞에는 탑지가 있다.

(3) 동혈사지(東穴寺址)

① 발굴 위치: 공주군 의당면 월곡리에 있는 천대산(동혈산) 남쪽 중턱에 있다.

② 사찰 이름

- * 《동국여지승람》에 “동혈사는 동혈산에 있다.”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동혈사로 추정
- ※ 지금 동혈사에는 고려 때의 3층 돌탑이 세워져 있다.

③ 발굴 내용

- 산 경사지에 높이 4.5m, 길이 32m의 축대가 있다.
- 축대 위에 백제 때의 주춧돌이 널려 있고, 여기에 두 채의 건물지가 있다.
- 건물지 북쪽 50m 되는 곳에 석굴이 있다.

2) 1금당1탑 형식의 가람배치

① 1금당1탑식 가람배치: 탑 하나에 금당 하나를 가진 형태

②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가람배치로, 많은 사찰건축지가 발굴되었음

③ 대표적인 사찰건축지: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 금강사지(金剛寺址), 정림사지(定林寺址), 왕흥사(旺興寺),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등

- 군수리사지가 가장 시기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이 금강사지이며, 정림사지는 가장 나중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³⁾

(1)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

① 발굴 위치: 부여 군수리에서 발굴된 폐사지. 원래 사찰의 이름을 알 수 없음.

② 발굴 내용

- 남북을 잇는 자오선 중심축 위에 남쪽으로부터 중문지, 탑지, 금당지, 강당지가 있다.



도면1 가람배치도

군수리사지 가람배치도

- 강당지 좌우의 작은 건물지는 경루지와 종루지이다.
- 회랑 밖으로 기능을 알 수 없는 건물지가 있다.
- 탐지 사방 46척의 벽돌을 쌓아 주위를 돌린 기단과 기단 상면에 타다 남은 나무 기둥(목탑 주위에 세운 차양간 기둥으로 추정)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 탐지 중앙의 지표면 아래 6척 되는 곳에 한 번이 3.1척 되는 방형 심주초석이 노출되고, 그 위에서 금동불상, 석인상, 금환, 소옥이 출토되었다.
- 금당지는 동서 약 90척, 남북 60척의 기와를 세워 쌓아 마무리한 와적기단(瓦積基壇)으로 이루어졌으며, 과련옥, 금동령 등이 출토되었다.
- 강당지는 동서 120척, 남북 60척 크기의 와적기단이었으며, 기단 북쪽 중앙에 북쪽으로 통하는 통로자리가 있다.
- 금당 좌우에 남북으로 납작한 돌을 깎아 낸 것이 발굴되었는데, 회랑지로 추정되며, 그 밖에 다른 건물지는 용도를 알 수 없다.
- ※ 금당지와 좌우의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들 사이에 회랑이 있었다면, 회랑과 건물은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이 되어 건축공간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다. - 회랑이 없고, 바닥에 깎아 낸 납작한 돌들을 돌길이나 후대의 것으로 추정할 경우, 이 건물지를 동서금당으로 해석하여, 고구려 금강사지의 3금당1탐식이 계승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 이곳 폐사에서 중공상자형유문전(中空箱子形有紋塼)이 출토되었다.



[중공상자형유문전]

(2) 금강사지(金剛寺址)

- ① 발굴 위치: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금강천(琴江川)을 앞에 둔 동남향 대지
- ※ 《대동여지도》,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천이 “金剛川”이라고 되어 있다.
- ② 발굴 내용
 - 1964년, 1966년 2차에 걸쳐 발굴 - 동향한 1금당1탐식 가람으로 판명
 - 가람배치 형태: 남북 150m, 동서 170m되는 폭이 좁고 양변이 긴 장방형의 동서 중심축상에 중문, 탐, 금당, 강당을 세우고, 그 좌우로 회랑을 둘러쌌다.
 - 회랑 밖의 강당지 위쪽에서 장방형의 승방지가 발굴되었다.
 - 금당지
 - * 초석은 없었음.
 - * 서북과 서남 모퉁이에 남아 있는 기단: 지대석 위에 면석을 놓고, 다시 갑석을 덮은 것
 - 모서리에 기둥을 세웠음을 알 수 있음
 - 탐지나 강당지 등에서 판축기법으로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 확인됨

(3) 정림사지(定林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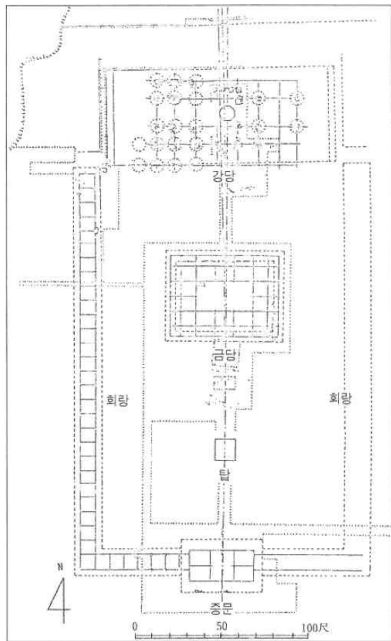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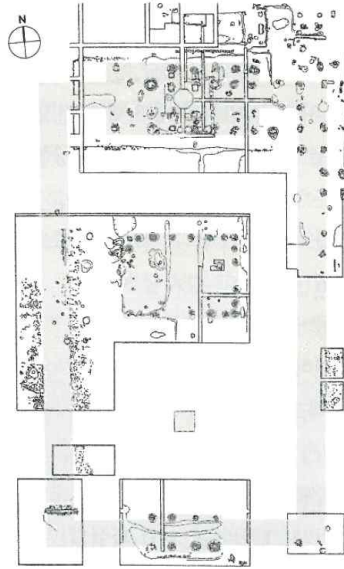


그림 21 정림사지 배치도



부여 정림사지 가람배치도 부여 시내 한 복판에 있는 백제 일탑식의 또 다른 사례이다. 창건 시에는 목조탑

- ① 발굴 위치: 부여 동남리에 있는 폐사지
- ② 사찰 이름: 1942~1943년 발굴 당시, “太平八年 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 쓴 기와가 출토되어 정림사지임을 알게 되었다.
 - 1979~1980년에 전면적인 재발굴이 있었다.
- ③ 건립 시기: 583년 백제가 부여에 도읍을 옮긴 직후 창건된 것으로 추정
- ④ 발굴 내용
 - 남북으로 긴 장방형, 남북자오선의 중심축 상에 남쪽으로부터 중문, 5층석탑, 금당, 강당이 자리 잡고 있고, 좌우로 회랑이 둘러져 있다.
 - 강당지: 가운데의 거대한 고려시대 석불좌상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재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굴로 이를 확인하였다. 5개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방형의 초석이 발견되었다.
 - * 5개의 방형 초석 중 4개는 석불좌상을 중심으로 전후 2개씩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중문 남쪽으로 중문지가 있으며, 그 좌우에 연못자리가 노출되어 있다.
 - 중문지: 석탑 남쪽에 있으며 중문지 중심축은 석탑 중심축에서 서쪽으로 약 12cm 어긋나 있다. 적심석군이 전후 각 4개씩 발견되어 전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금당지: 이중 기단이며, 아랫단은 정면 7칸, 남북 5칸의 차양간(遮陽間)의 기둥들이 서 있었고, 윗기단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금당이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석탑의 기단 아래 토층은 모두 관측으로 3개의 층으로 쌓았다.
 - * 그 최상층은 황색 사토질로 두께 30cm, 석탑 외곽 석렬 밖 60cm까지 넓은 범위에 쌓았다. 아래층은 적갈색으로 곳에 따라 2~3cm, 5~6cm 되는 두께의 층을 여러 층 쌓아 전체 두께 80cm를 이루고 있다.
 - * 최하층 관측은 약 70cm 두께로 넓이는 위층보다 좁다.



정림사지 발굴 사진



정림사지 발굴사진

④ 시사점4)

- 사찰건축지의 위치로 보아, 백제 도성 내에서도 각별히 중요하게 여긴 사찰이었을 것으로 짐작됨
- 금강사지와 마찬가지로 문, 탑, 금당, 강당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1금당1탑의 전형적인 백제 사찰 형태(1942년 조사에서 확인됨)
- 현재의 석탑양식으로 보아 초창 때 탑이 아니라 초창시 목탑에서 중창시 석탑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왕흥사(旺興寺)



① 발굴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② 건립 시기: 2007년 발굴된 목탑지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丁酉年二月 十五日百濟 王昌爲亡王 子爲刹本舍 利二枚葬時 神化爲三”(정유년(577) 2월 죽은 왕자를 위해 백제왕昌(威德王)이 사찰을 세우고 본래 사리 두 매를 묻었는데, 신의 조화로 셋이 되었다.)라는 글이 발견되어, 건립연대가 확인되었다.

③ 문헌기록: 《삼국사기》 “무왕 32년(634) 사찰을 강에 인접하게 만들고 채색하여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왕이 자주 배를 타고 사찰에 가서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기록 있음

④ 발굴 내용

-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상에 자리하는 1금당1탑 식 가람형식



왕흥사 사리 장신구



왕흥사 복원 조감도



왕흥사 출토 수막새



왕흥사 사리장신구 발굴사진



왕흥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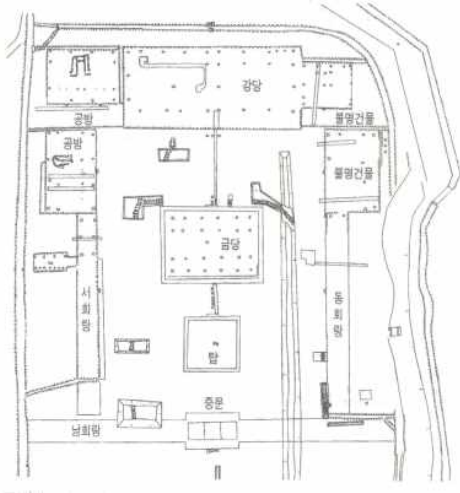


왕흥사 출토 유구

(5)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 ① 발굴 위치: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일원
- ② 출토품: 금동용봉향로 - 6C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 * 백제 조형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됨

1)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90쪽.
 2)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66~70쪽.
 한인호, 『조선 중세 건축유적연구-삼국편』, 한국문화사, 1998. 147~161쪽.
 3)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51쪽.
 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50쪽.



능산리사지 가람배치도



금동용봉향로

③ 발굴 내용

- 경사진 지형을 살려 아래쪽부터 중문과 목탑, 금당, 강당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전형적인 1금당1탑식 가람배치)
- 목탑지 땅속에서 심초석이 발견되었으며, 심초석 위에서 심주의 하부를 이루었던 목재가 출토되었다.
- 금당: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일반적인 모습
- 강당: 금당 뒤 한 단 높은 대지 위에 위치, 한 지붕 아래 구조가 다른 2개의 건물이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놓인 특이한 형태
- 서쪽 건물의 실내 중앙에는 중앙에 아궁이를 둔 구들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 강단 좌우에 있는 공방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실내바닥에서 장기간 불에 탄 흙바닥이 노출되고 주변에 많은 금속제품 조각들이 출토되었다.
- 일부 건물지에서 벽을 만들 때 기둥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배열하지 않고, 1m 미만으로 촘촘히 세웠던 흔적이 나타났다.

3) 무탑 형식의 가람배치

(1) 동남리사지(東南里寺址)

① 발굴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동남리

- 동남리사지에 대해 전하는 기록이 없고, 유물에도 사찰과 관련된 명문이 없다.

② 발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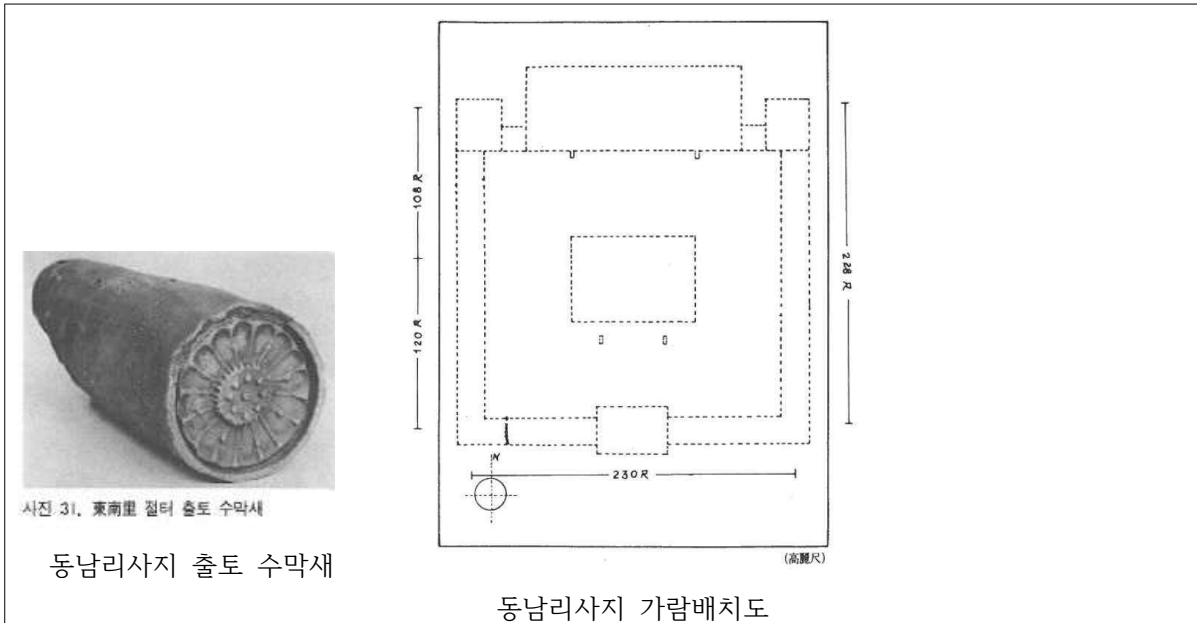
- 탑이 없는 무탑식 가람

- 사찰건축지의 총평면에서 문, 금당, 강당이 남북 중심축 위에 있고, 경루와 중루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③ 특징

- 부여 일대의 1금당1탑 가람배치의 사찰과 같은 형태이나 탑이 존재하지 않는다.

- 회랑윤곽 평면이 정방형이며, 금당의 남쪽과 북쪽에 4개의 연못이 있다.



2. 백제 사찰건축의 특징5)

1) 1금당1탑식 가람배치

백제의 가람배치는 각각 사찰의 건물배치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남북 직선축에 따라 문, 탑, 금당, 강당이 배치되고 문 좌, 우로 연결된 회랑이 남북으로 긴장방향을 이루면서 탑과 금당을 둘러싸고 강당 좌우로 연결되는 1탑식가람배치이다.

- 예: 금강사지, 정림사지, 능사리사지, 군수리사지 등

※ 고구려 가람과의 차이점

- 고구려의 탑이 8각형인데 반해 백제는 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가람배치법도 고구려의 3금당식과 달리 1금당식을 취하고 있다.
- 가람의 남북방향이 동서방향보다 길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 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차이를 보이는 이유

① 1금당1탑식 가람배치 형태의 사찰이 건립된 시기 - 부여로 천도한 후 왕권이 비교적 안정을 찾은 시기로서 왕권이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도성주변에 건립된 사찰들은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왕사(王寺)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

- * 이러한 기반조성은 왕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뛰어난 건축기술자의 창의력 확보가 요구되었을 것
- * 이러한 건축 환경이 백제 불사건축의 새로운 형태 창조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이러한 가람배치의 차별성은 불교문화의 전래국가에 따른 차이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 * 고구려
- 불교를 처음 전한 나라: 중국 북방 민족국가 전진(前秦)

- 후에 북방 국가인 북위(北魏)와 문화 교류를 가졌음

* 백제

- 불교를 처음 전한 나라: 춘추 시대의 십이 열국 가운데 하나인 진(晉)

- 남조의 양나라와 밀접한 문화 교류를 가졌음(문헌에 백제가 양나라로부터 건축기술자를 불러왔다는 기록이 있음)

2) 정방형의 탑

백제의 탑은 고구려의 8각형 탑과 달리 정방형이었다.



미륵사 목탑지

3) 판축공법의 사용

- 백제의 사찰건축지 기단은 판축기단과 토석혼축기단으로 구분된다.(이것은 백제 성곽의 성벽축조에서 판축성벽과 토석혼축성벽이 갈리지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두 가지 축조 공법이 서로 계통을 달리한 것을 보여주는 예)

- 백제 사찰의 전형적인 탑인 정방형 목조탑의 기단은 모두 판축기단이다.(석탑인 정림사 5층탑의 바닥돌판 및 지반도 판축공법으로 만들어졌다.)

※ 판축법: 흙을 시루떡처럼 다져 쌓는 기법

4) 총평면 계획에 기초한 계획적 가람배치

백제는 총평면 계획에 단위자를 기초한 기준크기에 준하여 구획을 분할하고 건물들을 조화롭게 형성·배치하였다.

①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는 탑의 기단너비를 기준크기로 하고, 그에 준하여 평면구획이 분할되고, 그 구획분할에 따라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의 공통점

* 중문과 탑 사이의 거리는 83척과 82척이고, 탑과 금당 간의 중심거리는 80척과 81척이며, 금당과 강당 간의 중심거리는 120척과 162척으로 중문, 탑, 금당 간의 거리가 서로 같다.

* 군수리사지: 탑 기단너비- 40자, 탑의 기단너비를 기준으로 총평면 구획을 나누면, 동서 5개(200자), 남북 7개(250자)로 5:7의 비례를 이룬다.

▶ 이 평면을 정사각형의 대각선전개법에 맞추면 “루트비례(√ 비례)”를 이룬다.

* 금강사지: 탑 기단너비를 기준크기로 하여, 총평면의 구획을 구분하면, 동서 5개(200자), 남북 7개(280자)로서, 군수리사지의 평면계획과 기본상 같다.

② 동남리사지: 탑이 없으므로 금당기단의 너비가 기준크기가 되었다.

* 금당기단의 절반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총평면의 구획을 분할하면 동서 6개, 남북 6개로 정방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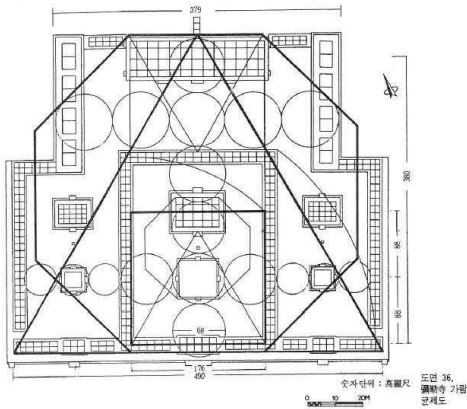
* 동남리사지의 총평면의 남북중심선과 동서중심선의 사립점은 금당의 중심점과 일치한다.

③정립사지: 크기 35cm의 단위자 검출. 회랑윤곽의 동서 너비-120자, 그것을 밑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면 그 정점은 금당의 남쪽중심부에 가 닿는다.

* 정립사탑의 1층 건축면적 = 정립사 금당앞뜰 면적의 1/100

④ 미륵사의 평면계획은 우리나라 고대 사찰 중 그 어느 것보다도 거의 완벽하게 기하학적으로 균제되었다.

▶ 미륵사의 가람배치계획은 건물과 가람 규모 등의 기하학적인 유기성을 보여준다.



미륵사 가람 균제도

3. 백제의 탑과건축6)

백제의 탑과건축은 현재 석탑 2기만 전해오고, 나머지 수원사지(水原寺址),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등은 모두 탑지 자리를 남기고 있다. 탑의 형태는 8각형인 고구려와 달리 정방형이다.

1) 목탑(木塔)

-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에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석탑(石塔)

- 미륵사지의 서석탑과 정립사 5층 석탑이 전해진다.

① 익산 미륵사지 서(西)석탑

- 7C 초 건립된 미륵사지의 서원에 서 있던 서석탑은 전체 높이 14.24m의 6층 옥개석까지, 동면과 북면의 일부만 남아있다.

- 남면과 서면은 일제 때 수리를 하면서 콘크리트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제 모습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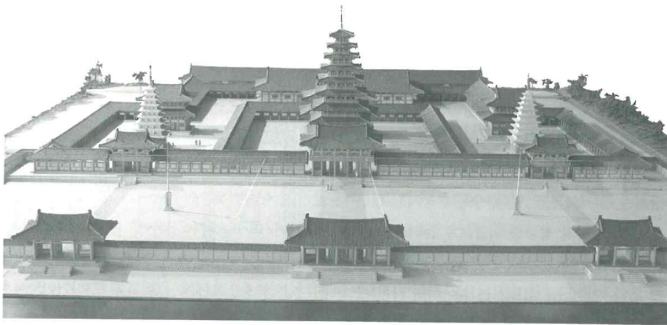
5)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97, 106쪽.
한인호 『조선 중세 건축유적연구-삼국편』, 하늬문화사, 1998. 159~163쪽.

6)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103, 108쪽.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70~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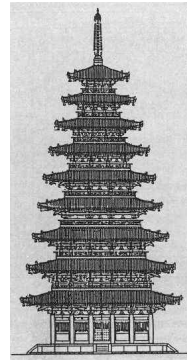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 서(西)석탑

- 1980년 발굴 조사 때 발견된 동탑의 노반석과 최상층 옥개석으로 동탑과 서탑 모두 9층탑으로 밝혀졌다.
- 기둥 위에 높이가 낮은 수평석이 기둥과 기둥 위에 놓여져, 마치 목조건축의 평방과도 같은 모습이다. 따라서 기둥과 기둥 윗몸 사이에 끼운 수평돌은 목조건축의 창방을 표현한 창방석이다.
- ▶ 현재의 석탑양식으로 보아 초창 때 탑이 아니라, “초창시 목탑 → 중창시 건축재를 석탑”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석탑의 시원(始原)양식을 보여줌)
- 옥개석은 층급받침이 3단 있고, 추녀는 살짝 들려 지붕면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 2층부터 옥개석의 층급받침이 2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체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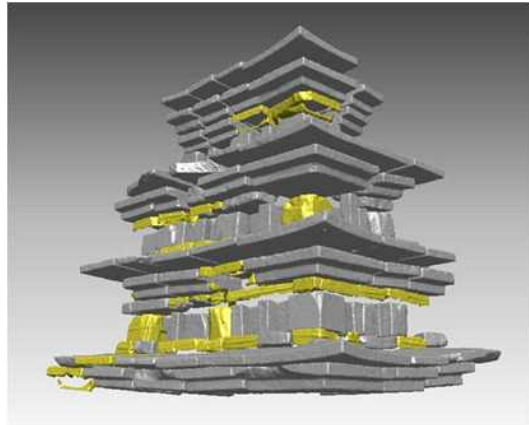
미륵사 중심부 모형 가운데는 목탑에 금당, 좌우에는 석탑에 금당을 둔 독특한 배치를 이루고 있다(전주박물관 전시 모형).



미륵사 중앙 목탑 추정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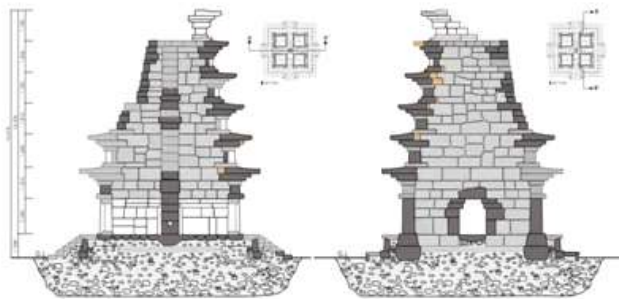


붕괴된 상태의 석탑 서측면(조선고적도보)



3D 추정도

붕괴된 상태의 석탑 서측면



추정 복원도(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서(西)석탑

② 정림사지 오층석탑



7C 초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초층 탑신에 탑 연대의 하한을 말해주는 “대당평백제기(大唐平百濟記)가 있음
-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하여 보다 세련되게 정비·정형화한 것

① 제일 아래층: 굽은 모래가 섞인 진흙으로 약 30cm 두께로 관축, 그 위에 적갈색과 황갈색의 진흙을 섞어 2~3cm, 또는 5~6cm 두께로 엮바꾸어 관축하였음(전체 두께: 약 80cm)

* 제일 윗층: 아래층처럼 관축하여 약 80cm 두께로 하였다.

② 관축 기초 위에 화강석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3단의 기단을 만들었다. 제일 윗단은 네모서리에 우주(宇柱)를 세우고, 가운데 평주를 세워 이들 기둥 위에 수평판(水平板)을 놓아 기단을 마감하였다.

③ 이 기단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평방(平方)석을 놓고, 옥개(玉蓋)석을 받쳐 1층을 이루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 옥개석의 추녀는 미륵사지 석탑에서처럼 모서리가 살짝 들리면서 지붕의 재림마루의 휘어진 곡선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 탑의 2층부터 5층에 이르면서 탑신의 높이는 급격히 체감되고, 탑신의 폭은 조금씩 체감되어 간다.

[심화학습] ※ 미륵사지

★ 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1금당1탑 형식의 변형

① 발굴 위치: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② 건립 시기: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무왕조에 나오는 기록을 볼 때, 백제 무왕대인 600~640년 사이에 지어진 것을 추정된다.

③ 발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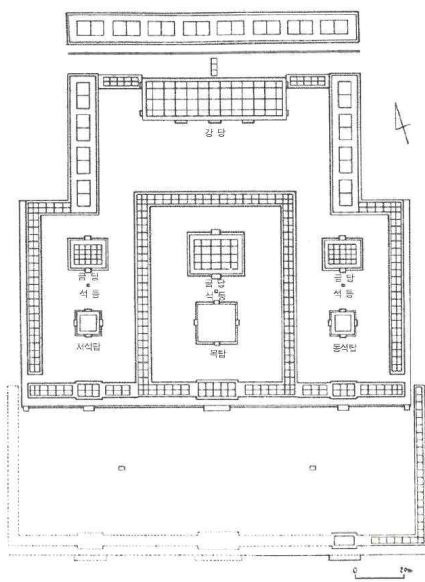


그림 22 익산 미륵사지 배치도

- 1980년대 발굴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측에 6층까지 탑의 일부가 남아있는 석탑이 있었고 그 뒤로 금당지가 있었으며, 남쪽 사찰건축지에 동서로 당간지주가 각각 하나씩 서 있었다.

- 발굴 조사 후 밝혀진 가람배치: 삼원병렬식(三院並列式)

* 금당과 탑으로 구성된 원(院)이 3개 나란히 놓이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회랑, 문, 강당, 요사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삼원병렬식 가람배치 이유: 미륵삼존을 모시기 위해 금당을 3개 두었음

▶ 전체적으로 3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각원은 탑과 금당으로 구성된 1탑식 가람배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 남북 자오선상에서 서쪽으로 약 23° 기운 남서-북동축을 중심축으로 하여 제일 남쪽에 남, 다음 중문, 탑, 금당, 강당, 요사채를 배치하고, 이 축의 좌우로 대칭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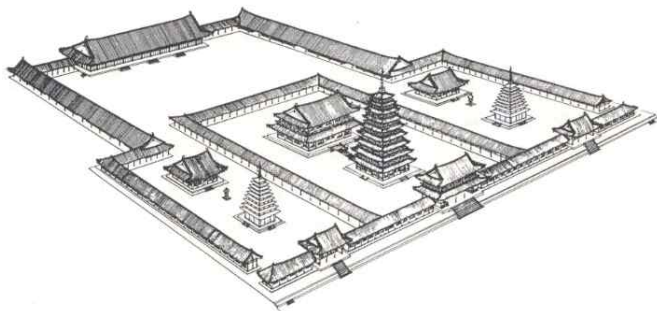
다시 남문, 중문, 탑, 금당을 배치하였다.

- 동서 회랑의 기단 외단까지 172m, 남단에서 강당북단까지가 148m 정도로 동서축이 남북축보다 긴 장방형구조이다.

- 목탑과 석탑은 모두 9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탑: 가운데-9층 목탑, 동쪽,서쪽-9층 석탑

* 탑지의 기단부와 동탑지에서 출토된 옥개석과 노반석으로 9층임이 밝혀졌다.



미륵사 복원 조감도



미륵사지 발굴 사진



미륵사지 발굴 사진



미륵사지 출토 서까래 막새기



미륵사지 출토 치미



미륵사지 출토 사리함





미륵사지 출토품



미륵사지 출토품

[정리하기]

1. 사지(寺址)를 통해 살펴본 백제 사찰

- * 백제의 불교건축문화: 가장 선진적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형식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백제가 도읍을 공주를 거쳐 부여로 옮기고 나서 성왕에 의하여 불교가 번창함
- * 백제의 가람배치형식은 크게 3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음

1) 석굴사 형식의 가람배치

- * 대표적인 사찰건축지: 서혈사지, 남혈사지, 동혈사지 등
- ※ 석굴사 형식의 가람배치의 의미
- * 웅진 도읍지인 공주에서만 발견되는 형식이다. - 백제의 불교가 은폐된 형태로 보급되고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음

(근거: 130년 동안 불교 관계 기록이 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음)

- * 그러므로 석굴에서 진화된 2차 형성 시기는 1차 형성 시기와 시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추정

2) 1금당1탑 형식의 가람배치

- ① 1금당1탑식 가람배치: 탑 하나에 금당 하나를 가진 형태
- ②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가람배치로, 많은 사찰건축지가 발굴되었음
- ③ 대표적인 사찰건축지: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 금강사지(金剛寺址), 정림사지(定林寺址), 왕흥사(旺興寺),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등

- 군수리사지가 가장 시기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이 금강사지이며, 정림사지는 가장 나중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됨

★ 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 1금당1탑 형식의 변형 - 삼원병렬식(三院並列式)

▶ 전체적으로 3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각원은 탑과 금당으로 구성된 1탑식 가람배치법을 적용함

* 삼원병렬식 가람배치 이유: 미륵삼존을 모시기 위해 금당을 3개 두었음

3) 무탑 형식의 가람배치

* 동남리사지(東南里寺址)

- 탑이 없는 무탑식 가람

- 사찰건축지의 총평면에서 문, 금당, 강당이 남북 중심축 위에 있고, 경루와 종루가 대칭으로 배치됨

※ 특징

- 부여 일대의 1금당1탑 가람배치의 사찰과 같은 형태이나 탑이 존재하지 않음

- 회랑운곽 평면이 정방형이며, 금당의 남쪽과 북쪽에 4개의 연못이 있음

2. 백제 사찰건축의 특징

1) 1금당1탑식 가람배치

※ 고구려 가람과의 차이점

① 고구려의 탑이 8각형인데 반해 백제는 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② 가람배치법도 고구려의 3금당식과 달리 1금당식임

③ 가람의 남북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길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 줌

※ 차이를 보이는 이유

① 1금당1탑식 가람배치 형태의 사찰이 건립된 시기의 영향

② 불교문화의 전래국가에 따른 차이

2) 정방형의 탑

- 백제의 탑은 고구려의 8각형 탑과 달리 정방형임

3) 관축공법의 사용

- 백제 사찰의 전형적인 탑인 정방형 목조탑의 기단은 모두 관축기단임

4) 총평면 계획에 기초한 계획적 가람배치

* 백제는 총평면 계획에 단위자를 기초한 기준크기에 준하여 구획을 분할하고 건물들을 조화롭게 형성·배치하였음

※ 미륵사의 평면계획은 우리나라 고대 사찰 중 그 어느 것보다도 거의 완벽하게 기하학적으로 균제되었음

3. 백제의 탑과건축

* 백제의 탑과건축은 현재 석탑 2기만 전해오고, 나머지 수원사지(水原寺址),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등은 모두 탑지 자리를 남기고 있음

* 탑의 형태는 8각형인 고구려와 달리 정방형

1) 목탑(木塔)

-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에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됨

2) 석탑(石塔)

- 미륵사지의 서 석탑과 정림사 5층 석탑이 전해짐

[참고문헌]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 김부식,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6.
- 대한건축학회 편, 『한국건축사』, 기문당, 2011.
-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일연(김원중 역), 『삼국유사』, 민음사, 2008.
-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 한인호, 『조선 중세 건축유적연구-삼국편』, 한국문화사, 1998.